**부산국제영화제**

**박광수 신임 이사장 위촉!**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늘 2월 1일(목) 영화의전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광수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승인했다.**

**임추위 단독 후보로 추대된 박광수 후보**

**정기총회를 통해 최종 가결!**



**박광수 이사장 후보가 2024년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이사장에 위촉되었다.**

지난 1996년부터 3년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영화제의 기틀을 다지는데 일조한 그는 부산프로모션플랜(현 아시아프로젝트마켓)과 아시아필름마켓(현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을 발족시켜 한국과 아시아영화 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부산영상위원회 초대 운영위원장, 한국예술종합대학 영상원 영화학과 교수를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 <칠수와 만수>(1988)를 시작으로 <그들도 우리처럼>(1990),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 등 한국 사회의 현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포착해 내며, 한국영화의 뉴웨이브를 이끌었다.

박광수 신임 이사장은 **“현재 영화계 상황이 어렵다. 이 상황에서 영화제가 잘 되는 것은 쉽지 않다. 빠른 시간 내 영화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영화제를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말씀드리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박광수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2월 2일(금)부터 시작되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오는 2월 13일(화)까지 영화제와 마켓 위원장, 이사, 감사직의 공개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역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3월 중 열릴 임시총회를 통해 모든 임원에 대한 선출을 마칠 예정이다.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심사 방법 등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biff.kr](http://www.biff.kr))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을 완료하며 영화제 순항을 기대케 하고 있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2일(수)부터 10월 11일(금)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 10월 2일(수) – 10월 11일(금)

\*제19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 10월 5일(토) – 10월 8일(화)

|  |
| --- |
| **□ 박광수 이사장 주요 경력**  ○ 2008. 뭄바이 제3의눈아시아영화제 아시아영화문화상 수상  ○ 2007. <눈부신 날에> 감독, 시나리오  ○ 2006. ~ 2007.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필름마켓 운영위원장  ○ 2004. 아시아 필름커미션 네트워크 설립, 초대 회장  ○ 2000. 전주국제영화제 디지털 프로젝트 ‘삼인삼색’<빤스 벗고 덤벼라> 감독  ○ 1999. ~ 2010.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 1999. <이재수의 난> 감독, 시나리오  ○ 1996. ~ 2020. 한국예술종합대학 영상원 영화과 교수  ○ 1996. ~ 1998.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1995.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감독, 시나리오  ○ 1993. <그 섬에 가고 싶다> 감독, 시나리오  ○ 1991. <베를린 리포트> 감독, 시나리오  ○ 1990. <그들도 우리처럼> 감독, 시나리오  ○ 1988. <칠수와 만수> 감독  ○ 1982. 영화운동단체‘서울영화집단’ 창설 |